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스위스 보험산업, 자국 감독규정 단순화 요청

□ 스위스 보험업계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국의 감독규정을 단순화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차원에서 유로지역내 보험사업 영위에 대한 편의 제공을 스위스 정부에 요청함.

- 스위스보험협회는 현재의 보험감독 규정이 과도하게 엄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복잡한 자본관련 감독은 단순화하여 국제감독기준과 정합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스위스 보험시장의 협소성으로 인해 유로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로보험시장 영업 위축은 정부의 전략적 접근 부재라고 평가함.

□ 스위스보험협회는 현재의 보험감독규정은 지급준비금과 관련된 서로 다른 3가지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보험산업은 다른 유로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Swiss Re는 엄격한 보험감독규정이 금번 금융위기와 같은 경우 보호막의 역할을 하여 스위스 보험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현재의 엄격한 감독규정을 계속 유지할 동기는 크지 않다고 주장함.
- 보험업계는 3개의 서로 다른 지급준비금 기준은 결국 지급준비금을 더 높여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분위기임.
- 그러나 스위스금융감독청(Finma)은 금융위기와 같은 사건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 양적 테스트: 리스크 측정(스위스감독청 기준), 질적 테스트: 방법론 및 변수(IAIS 기준), 활용 테스트(use test): 내부모형의 활용

□ 동 협회는 규모의 경제 달성과 장래 성장을 고려할 때 유로보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을 통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법인세의 차이 때문에 현지 자회사를 통한 소극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 유로시장에 대한 직접 진출시 자국의 높은 법인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스위스 보험업계는 자회사를 통한 영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글로벌 유로보험사에 비해 비교열위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Guardian 11/20,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Finma)2008.11.28)